2013.07.01(月)

사 내 한
2013-26(457)

DREAM MAKE IT.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NO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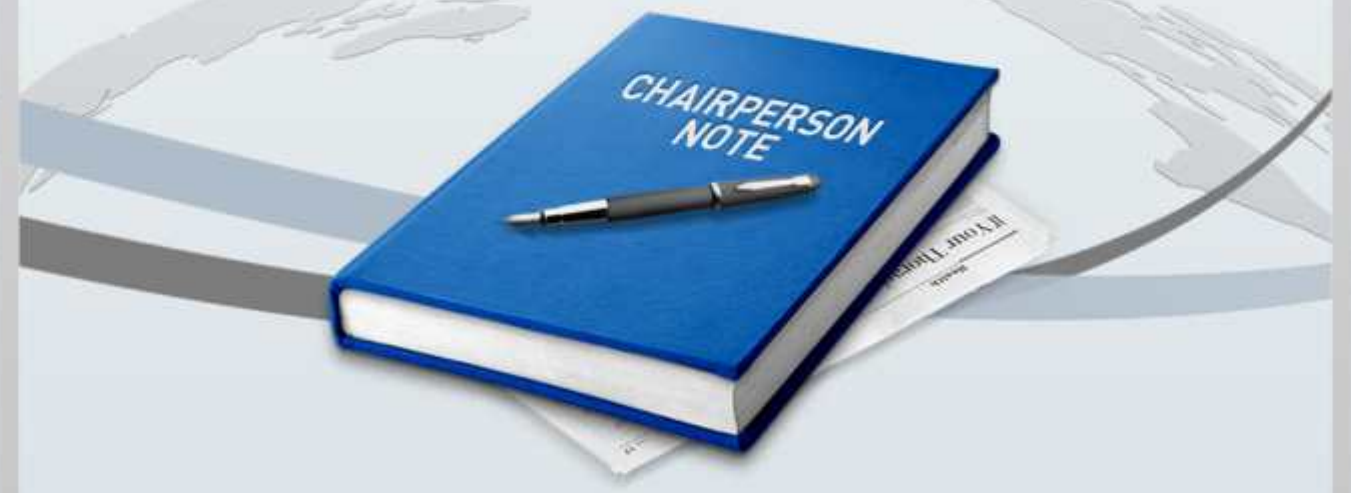
□ 경제 이슈
- 미국, 1분기 GDP 1.8%
- 정부, 2013년 경제성장률 2.7%로 상향

□ 경영 노트
- 갈등에 대한 대처방식

□ 사회 트렌드
- 최근 전세계 시위는 중산층의 분노
- 미국, 중국에 밀리지 않을 것

□ 저널 브리프
- CEO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 洗心錄
- 버려진 쓰레기의 법칙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http://www.hri.co.kr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경제연구원

□ 미국 1분기 GDP 1.8%

○ **美 상무부는 2013년 1분기 GDP 확정치가 민간소비, 기업투자, 대외거래 등의 모든 분야에서 당초 예상보다 부진한 결과를 보여 잠정치 2.4%에서 1.8%(전분기대비 연율)로 하향조정**

- **민간소비** : 민간소비는 급여세율 인상에 따라 서비스부문 소비를 중심으로 대폭 축소됨에 따라 잠정치 3.4%에서 2.6%로 크게 하향수정. 내구재 소비 증가율도 종전의 8.2%에서 7.6%로 하향조정
- **기업투자** : 기업 설비투자는 0.4%로, 종전의 잠정치 2.2%에 크게 못 미침. 특히, 주택 건축에 대한 기업투자는 -8.3%를 기록해 지난 2011년 1분기 이후 최대폭으로 축소
- **대외거래** : 수출은 잠정치 0.8%에서 -1.1%로, 수입은 1.9%에서 -0.4%로 하향조정

○ **최근 고용, 주택가격 등 미국 경제지표들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미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기대보다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출구전략 시기가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전망**

□ 정부, 2013년 경제성장률 2.7%로 상향

○ **정부는 2013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추경 편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치인 2.3%보다 0.4%p 상향 조정한 연간 2.7% 전망**

- **소비** : 민간소비는 추경 편성, 물가 안정세 지속 및 주택가격 회복 등으로 소비여건이 점차 개선되어 전년동기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투자** : 설비투자는 새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기업의 투자가 늘어 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 건설투자는 4.1 주택종합대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대외거래** : 수출은 對유럽, 일본 수출은 부진하겠지만 對중국, 아세안, 미국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여 전년동기대비 2.8% 증가 전망, 수입은 수출과 내수의 완만한 회복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하반기는 경제여건이 상반기 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엔저에 따른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잠재**

□ 갈등에 대한 대처 방식[1)]

○ **기업에는 임직원 간의 갈등 관계가 항상 존재하고,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느냐가 인사관리의 핵심**

- 조직 구성원 간의 지나친 갈등은 팀워크를 훼손하고 기업가치 창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갈등에 대한 대처 방식은 '상대에 대한 협력 정도'와 '나의 목표 달성 의지'라는 두 가지 축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

- 모든 유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더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상대의 갈등 대처 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함

< 갈등에 대한 대처 방식 >

	내 용
회피형 (Avoiding)	• 회피형은 갈등 상황 자체를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유형 • 갈등 관계가 발생하면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기 위한 안식처를 찾으며, 회의 시간에 갈등이 생기면 슬며시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례 • 갈등 이슈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중요한 일이 아닐 때는 효과적인 방법
호의형 (Accommo-dating)	• 호의형은 이른바 '예스맨(Yes man)'과 같은 사람이고, 치열한 논쟁을 통해 대안을 만들기보다는 상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 • 그러나 이들의 '예스'는 진심이 아닐 수도 있으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더 이상 힘들어서 회사 못 다니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음 • 따라서 부하직원이 호의형이라면 꾸준한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조직 충성도를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함
타협형 (Compro-mising)	• 타협형은 갈등 상황을 '빨리' 끝내는 것을 중시하며, 서로 공정하게 양보하는 해결 방법을 선호 • 타협형 방식은 제한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하는 갈등 상황인 경우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어느 쪽도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 •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는 생각으로 쉽게 양보할 수 있는 것과 꼭 얻어야만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둘 필요가 있음
경쟁형 (Competing)	• 본인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유형으로, 때로는 '독불장군'처럼 비춰질 수 있음 • 이들은 자신의 의사 관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들으면 공격 받았다고 느낌 • 확실한 정보가 있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면 필요한 방법
협력형 (Collabo-rating)	• 적과 아군을 구분하려 들지 않는 타입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 •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에는 효과적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

1) '尊異求同: 다름을 인정하고 해법 찾아라'(동아비즈니스리뷰, 2013.06.20)를 요약 정리함.

□ 최근 전세계 시위는 중산층의 분노[2)]

○ **최근의 시위사태 뒤에는 공통적으로 '새로운 글로벌 중산층'이 있다고 함**

-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존스홉킨스大 교수는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오늘날 세계적인 정치 혼란의 공통 분모는 경제력과 교육수준이 높아진 중산층의 점증하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라고 지적
- 지난 10여 년 동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온 터키와 브라질에서 격화되고 있는 시위사태는 물론 2011년 튀니지·이집트 등을 휩쓴 '아랍의 봄', 최근 중국에서 잇따르고 있는 각종 시위사태의 핵심 세력은 바로 '중산층'이란 것임

○ **후쿠야마 교수는 중산층이 사회 변혁을 이끄는 것은 이미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중국 공산혁명 등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 21세기 현재에도 경제·정치적으로 의식이 높아진 중산층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국가들에서 정치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

- 특히 중국의 중산층이 수억 명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다가올 10년간 중국 중산층이 큰 스트레스 아래에 놓이게 될 것으로 전망

□ 미국, 중국에 밀리지 않을 것[3)]

○ **미국이 세계 최강국 지위를 중국에 내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지적**

- 그는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새로운 종류의 미국의 힘'이란 글에서,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를 갖게 되더라도 1인당 국민소득은 미국에 수십 년 뒤쳐질 것인데, 1인당 국민소득은 한 나라의 경제 수준이 얼마나 성숙하고 세련됐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
- 그는 셰일가스 등 미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 덕택에 미국 경제는 중국 경제보다 외부 충격에 훨씬 덜 취약하고,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방과 혁신을 강조하는 미국의 풍토라는 것임
- 미국은 세계 유일 슈퍼파워는 아니지만, 국력 면에서 1위인 시대가 당분간 전개될 것으로 전망
- 앞으로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지만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얻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역설적인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내다봄

---

2) '최근 전세계 시위는 중산층의 분노'(문화일보, 2013.7.1)를 요약 정리함
3) '美, 中에 밀리지 않을 것'(헤럴드경제, 2013.7.1)를 요약 정리함

□ CEO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4)]

○ **CEO는 누구보다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판단이 정확하다고 자부하지만, CEO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 GE의 잭 웰치 역시 회사 사정을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CEO일 수 있으며 실제로 자신도 그랬다고 밝힌 바 있음

① 사업상의 리스크

- CEO를 비롯한 경영진은 기업의 장밋빛 미래에 집중한 나머지 그 뒤에 숨겨진 리스크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음
- 릴젠퀴스트 경영학 교수의 실험 결과, 하위 직급과 비교했을 때 고위 직급일수록 경영 목표에 방해되는 요소를 잘 기억하지 못했으며 긍정적 요소를 중심으로 의사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이 밝혀짐
- 한쪽으로 편중된 정보에만 의존하면 올바른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며, 특히 경영진일수록 기업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을 간과하는 태도는 위험

② 부하 직원의 감정

-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를 배려하는 능력이 부족한 경향이 있음
- 반 클리프 심리학 교수에 의하면, 자신이 높은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고통과 괴로움에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함
-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리더 하에서 부하 직원들은 상처받기 쉬우며, 그 결과 리더는 좋은 인재를 놓치거나 직원들의 신뢰를 잃고 고립무원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③ 자신의 정확한 모습

- 고위 직급일수록 누군가를 평가하는 데 익숙한 나머지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평가하는 자기 인식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글로벌 컨설팅기업 헤이그룹의 조사 결과, 자기 인식 수준이 높은 리더의 92%가 그렇지 않은 리더보다 최대 30%의 성과를 더 이끌어낸다는 사실이 밝혀짐
- 자신에 대한 냉철한 성찰은 리더의 생각과 비전을 더 확고하게 하며 이런 리더가 이끄는 조직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짐

4) 'CEO는 잘 모른다, 자신이 뭘 모르는지를…'(조선비즈, 2013.05.09)참조

□ 버려진 쓰레기의 법칙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 두면 된다고 한다. 주변에 쓰레기 더미가 있는 경우 무심코 더하여 버리는 데 주저함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깨끗한 곳에서는 쓰레기를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보면 버려진 쓰레기가 또 다른 쓰레기를 부르게 되는 것이다.

귤이 탱자가 된다는 '귤화위지(橘化爲枳)', 『안자춘추(晏子春秋)』「내잡(內雜)」편에 나오는 말로 강남에 심은 귤을 기후와 토양이 다른 강북에 심어 놓으면 탱자가 되듯이 주위 환경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

춘추시대 초나라 영왕과 제나라 재상 안영의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화다. 포승줄에 묶여 지나가던 죄수를 가리키며 영왕이 묻고 신하가 답하였다. "저 죄수는 어디 놈이냐?", "제나라 출신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제나라 사람들은 모두 도적질을 잘하는가?"

대화를 듣고 있던 안영은 제나라 출신인 자기를 조롱하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짐작하고 영왕에게 말했다. "저 죄인은 제나라에서 살 때는 선량하였으나 초나라에 살더니 도적이 되었습니다. 이는 초나라의 풍토가 그를 도적으로 만든 것이지 제나라 사람이라는 사실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에 깨달은 바가 컸던 영왕은 이후 예의를 다해 안영을 대하였다.

기업 경영에서도 마찬가지다. 비전이나 경영 전략과 같은 거창한 작업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사소하지만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고객이 겪은 단 한 번의 불쾌한 경험, 어지럽게 정리된 매장, 지나가는 말로 흘린 약속 등 어찌 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실수가 또 다른 실수를 부르게 되고 결국 기업의 앞날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문제는 사소한 곳에서 발생하며 사실 예방이 쉽지는 않다. 잘나가던 우유회사가 한 영업사원의 실수로 존폐를 걱정하게 된 최근 국내 기업의 사례처럼. 청소는 더러워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水隨方圓之器(수수방원지기)하고 人依善惡之友(인의선악지우)니라.

물은 그 그릇의 모양에 따라 변하고 사람은 선하거나 악한 그 벗의 심성을 따른다.

- 명심보감(明心寶鑑)